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은 2025년 8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 여러 장소에서 개최됩니다. 오컬트, 신비주의, 영적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세계 각지 예술가들의 커미션 신작 재제작 및 기존 작품을 다양하게 선보일 이번 비엔날레는 자본주의 근대성의 가속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논리외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는 정치적이고 지적인 구조에 대항하고, 이를 재구성할 - 있는 대안적 '기술'로서 비엔날레를 제시합니다. '강령적 경험을 제안하는 비엔날레'는 깨어 있는 삶 너머의 세계로 접속하고자 하는 오랜 열망의 역사를 바탕으로, 영적 세계와의 교류가 어떻게 예술창작의 언어와 방법을 변화시켜 **봤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Open to the public from August 26 to November 23, 2025, at Seoul Museur of Art and other venues in Seoul Séance: Technology of the Spirit will present new and existing work from artists around the world, past and present, who have drawn on occult mystical, and spiritual traditions. Key to the 13th edition is that these alternative "technologies" contest the accelerationist and rationalistic logi of capitalist modernity, and might therefore resist-and reconfigure the political and intellectual struc tures that shape our experience. Thi long history of attempts to contact worlds beyond waking life and seeks t outline how this engagement transformed the languages and methods of artistic production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61, Deoksugung-gil, Jung-gu, Seoul 입장료 무료

nttps://sema.seoul.go.kr/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ematheque Seoul Art Cinema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아트힐 2층 2F, Kyunghyang Art Hill, 3 Jeongdong-gil, Jung-gu, Seoul

입장료 일반 9,000원, 단체(20명 이상) 7,000원, 청소년/노인/장애인 6,000원, 관객회원 5,000원(가입비 60,000원),10회 관람권 80,000원 Ticket Adults 9.000 KRW. Group (more than 20 people) 7,000 KRW, Under 18/Seniors/Disabled 6.000 KRW, Members 5.000 KRW (1 Year Membership 60,000 KRW) 10 admission pass 80,000 KRW

nttps://www.cinemathegue.seoul.kr

《강령: 영혼의 기술》 옥상 상영회

Séance: Technology of the Spirit A Rooftop Screening Program at SeMA

2025.09.01-09.04 19.30-20.50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imes 프리즈 필름 서울 2025 The 13th Seoul Mediacity Biennale (SMB13) imes Frieze Film Seoul 2025

주관 및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Host & Organizer Seoul Museum of Art SeMA 파트너 프리즈 SeMA Partner Frieze

2025, 09, 01 프리뷰 Preview - 초대장 소지자 Invitation Only 2025 09 02 - 09 04 19 30-20 50 사전예약 Advance Reservation Required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은 프리즈 필름 서울 2025를 위해 예술감독팀 안톤 비도클, 할리 에어스 루카스 브라시스키스가 기획한 특별 상영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옥상에서 개최되는 본 프로그램은 영적이고. 신비로우며, 마법 같은 힘을 스크린에 불어넣어 일상에 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아티스트 필름을 선별하여 소개합니다. 네 가지 소주제 **조화, 반환, 교섭,** 각몽(覺夢)으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매일 저녁 예술감독팀의 소개와 함께 필름을 상영하며, 개막일에는 리셉션도 예정되어

* 상영 시작 전 상영 작품에 대한 예술감독팀의 토크가 진행됩니다 The 13th Seoul Mediacity Biennale presents a special screening program curated by artistic directors Anton Vidokle. Hallie Avres, and Lukas Brasiskis for Frieze Film Seoul 2025. The screenings will take place on the rooftop of Seoul Museum of Art and feature a selection of artists' films that converge spiritual mystical, and magical forces on the screen in ways that change our understanding of everyday life. Composed in four chapters—Harmony, Reclaiming, Communion, and Waking Dreams-the screening program will be accompanied by introductions by the artistic directors and a reception on the program's opening day

* A short introduction by the Artistic Directors will precede each screening.

조화 Harmony

Day 2

반환 Reclaiming

피타고라스주의부터 수피즘과 헤르메스주의에 이르는 밀교 전통에서 조화는 그저 기분 좋은 미학적 일치라기 보다는, 우주 질서를 구성하는 근본 원리로 제시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상에 따르면 모든 차원의 무질서는 적절한 비율에 맞춘 재정렬을 통해 해결된다고 합니다. 여러 조화의 형태들 가운데서도 특히 산 자와 망자 간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제물, 기도, 기억을 통해 조화를 유지하는 것은 삶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과거와 현재를 신성한 순환 속에서 묶어두어 미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전통 의식 실천의 회복은 영적이고 문화적인

복원의 행위와 같습니다. 종종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생태주의 운동과 연결되는 이

행위는 이단적이거나 '워시적'이라는 식의

이해 밖에서 창출되는 지식의 다른 형태들에

관한 식민주의적 억압에 도전합니다. 치유,

저항, 기억의 행위로서 의식의 회복은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멸의

세상에서 직관, 체현, 공동체적 소속감에

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과거를 잇는 오래된

실타래를 사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직조하는

In esoteric traditions from Pythagoreanism to Sufism and Hermeticism, harmony is not merely a pleasing aesthetic coincidence but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osmic order. According to these schools of thought, disorder at every scale can be resolved by realignment to this set of proper proportions. Not the least of these forms of harmony is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Maintaining this harmony—through offerings, prayers. or remembrance-ensures the continu ity of life, binding past and present in a sacred cycle and thereby securing the

Reclaiming the practice of traditiona

rituals is an act of spiritual and cultural

restoration. Often linked to decolonial

feminist, and ecological movements,

it challenges the colonial suppression

the grounds that they are heretical

or "primitive." As an act of healing,

reclaim ritual is not simply to reenact

the past but to weave new meanings

from old threads, honoring intuition,

embodiment, and communal belonging

as sacred acts in a disenchanted world.

resistance, and remembrance, to

of other forms of knowledge on

2021

Sky Hopinka

〈형상과 이성의 기억술〉

Reason

제인 진 카이젠

lane lin Kaisen

〈어귀〉

Portal

2024

12 min

Mnemonics of Shape and

〈형상과 이성의 기억술〉은 잃어버린 장소와 시간의 기억을 다룹니다. 작가는 재조합한 풍경의 단편적 이미지들을 공감각적이고 명상적인 음악과 시의 구절들과 중첩시킵니다 땅, 하늘, 바다, 신화, 장소, 영성을 연결하는 이 단편 영화는 식민지적 파괴, 자아와 토착성에 관한 강렬한 명상록이 스카이 호핀카

호출합니다.

remains undefined.

memory of a lost place and time. The artist overlays fragmentary images of reassembled landscapes with atmospheric music and snatches of poetry. Linking land, sky, sea, myth, place, and spirituality, this short film is a powerful meditation on colonial devastation, selfhood, and indigeneity.

(어귀)는 모든 생명의 선조로 여겨지는 설문대합명

여신에 관한 제주 창조 신화를 통해 서술됩니다. 작가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 육지와 바다는 상호

연결된 존재입니다. 〈어귀〉는 형태를 미처 찾지 못한 언어와

모든 것이 정의되지 않은 채 남겨진, 흐름과 출현의 공간을

Portal is informed by the creation myth of leiu, accord-

ing to which the goddess Seolmundae Halmang is the

progenitor of all life. Here, as elsewhere in the artist's

Portal invokes a space of flux and emergence, in which

language has yet to settle into form, and everything

work, the land and sea are interconnected entities.

Mnemonics of Shape and Reason expresses the

(5) 쇼 챠웨이 Hsu Chia-Wei 〈마샼 티에 지아 — 거북섬 (鐵甲元帥-龜島)> Marshal Tie Jia — Turtle

2012 6 min

카라빙 필름 콜렉티브

Collective

〈워타르, 바다 꿈〉

Wutharr, Saltwater

Dreams

2016

28 min

Karrabing Film

대만 해협에 있는 마츠섬은 '마샬(장군)'이라고 불리는 지역 신의 보살핌 아래 존재합니다. 이 신은 중국 우이산의 한 · 사찰에서 지내다가 문화대혁명 당시 사찰이 파괴된 이후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오래전 황폐해진 벙커로 대체된 원래의 작은 사찰을 가상으로 구현한 섬을

The island Matsu in the Taiwan Strait is under the commandment of a local god called The Marshal. This frog deity came from a temple on Wu-Yi Mountain in China, which was destroyed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prompting The Marshal to migrate, Hsu films the island with a fictionalized version of the origin nal tiny temple, long since replaced by a dilapidated

형태적으로 초현실적이고 사이키델릭한 형식에 가까운

식민주의 법제라는 중첩된 압박, 그 저변에 지속적인 이행을

각인시키는 선조들의 믿음 체계 사이를 어떻게 유영하는지

Surreal and near-psychedelic in form, this film traces

how a community navigates the overlapping pressures

of missionary-Christian morality and settler-colonial

law, where ancestral belief systems persist beneath

imposed codes of conduct.

이 영화는 한 공동체가 기독교 선교 윤리와 정착민-



〈로렌 오의 경외로운 공중 부양〉 The Magnificent Levitation Act of

> 2022 15 min

(10)

2018

9 min

정위안

Zheng Yuan

〈드림 딜리버리〉

Dream Delivery

Lauren O

유사 다큐멘터리 형식의 이 작품은 공중 부양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가상의 인물 로렌 오에 관한 이야기를 듬려줍니다. 안젤라 수는 이 작품에서 로렌 오가 보드빌 공연(여러 장르가 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오락 공연)을 하는 무정부주의자 그룹 '레이든 레이븐' 멤버가 된 이야기부터, 1967년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에 가담하여 펜타곤의 미군 본부를 공중에 띄우려 했던 시도까지 서술합니다.

This pseudo-documentary tells the story of Lauren O, a fictional character who believes she can levitate. Su narrates Lauren O's story from her membership in Laden Rayen, an anarchist group of vaudeville performers, to her involvement with anti-Vietnam War protesters who, in 1967, attempted to levitate the US military headquarters at the Pentagon.

도로변 벤치 위에 지쳐 잠이 든 배달 기사가 꿈을 꿉니다.

꿈에서 버려진 산짜이 공원에 모여든 노동자들은 속도와

효율을 추구했던 그들의 일과와 달리 '조각상'이 됩니다.

불안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깨어 있는 시간에

An exhausted delivery rider dreams while sleeping

on the bench beside the road. In the dream, laborers

"statues" that contrast with their routine pursuit of

gather together in a deserted Shanzhai park, becoming

speed and efficiency. In these dream visions, the artist

not only captures the fatigue and anxiety that mark

our time but questions how we spend our waking

관해서도 질문합니다.

hours.

이러한 꿈속 장면을 통해 작가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피로와

Séance: Technology of the Spirit 강령: 영혼의 기술

서울시립미술관

https://mediacityseoul.kr/

NAKWON SANGGA

325 339 412 き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Unit 325, 339, 412 428, Samil-daero, Jongno-gu, Seou

입장료 무료 Free Admission

https://enakwon.com/new/

청년예술청 SAPY

gu, Seou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26-26 어바니엘 충정로 102동 지하 2층 그레이홀 B2F Gray Hall, Chungjeongno Urba 26-26, Kyonggidae-ro, Seodaem

Seoul Artists' Platform New&Young

무료 입장 Free Admissi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 가능 Both pre-registration and on-site registration are available.

https://www.sapy.kr

Day 1 - 09.01 조화 Harmony

스카이 호핀카, 〈형상과 이성의 기억술〉, 2021 Sky Hopinka, Mnemonics of Shape and Reason, 2021 제인 진 카이젠,〈어귀〉, 2024 lane lin Kaisen, Portal, 2024 라우라 우에르타스 밀란, 〈코카를 위하여〉, 2023 Laura Huertas Millán, Para La Coca, 2023

Day 2 - 09.02 반환 Reclaiming

콜렉티보로스 잉그라비도스, 〈코욜샤우키〉, 2017 Colectivo Los Ingrávidos, Coyolxauhqui, 2017 슈 챠웨이, 〈마샬 티에 지아 ― 거북섬(鐵甲元帥-龜島)〉, 2012 Hsu Chia-Wei, Marshal Tie lia — Turtle Island, 2012 카라빙 필름 콜렉티브, 〈워타르, 바다 꿈〉, 2016 Karrabing Film Collective, Wutharr, Saltwater Dreams, 2016

Day 3 - 09.03 교성 Communion

요아킴 쾨스터. 〈해시시 클럽〉. 2009 loachim Koester, The Hashish Club, 2009 타마르 귀마래스와 카스페르 악호이, 〈진동하는 물질의 비주류적 역사 연구〉, 2017 Tamar Guimarães and Kasper Akhøj, Studies for a Minor History of Trembling Matter, 2017 안젴라 수. 〈로렌 오의 경외로운 공중 부양〉, 2022 Angela Su, The Magnificent Levitation Act of Lauren O, 2022

Day 4 - 09.04 각몽(覺夢) Waking Dreams

정위안, 〈드림 딜리버리〉, 2018 Zheng Yuan, Dream Delivery, 2018 아밋 두타, 〈헤마디 씨의 중단된 꿈들〉, 2024 Amit Dutta, The Many Interrupted Dreams of Mr. Hemmady, 2024 아노차 수위차콘퐁, 〈그레이스랜드〉, 2006 Anocha Suwichakornpong, Graceland, 2006

신성한 행위입니다.

영적 공동체들은 관습적인 사회 구조 바깥에서 소속감을 위한 공간을 제시합니다. 마녀 집회, 서클, 혹은 비밀 결사 등의 모임들은 공동체적 돌봄과 친밀감의 맥락에서 초월적 경험을 토대로 둡니다. 점점 더 세분화되는 세상에서 이 공동체들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미를 창조하고, 연대감을 다시 상상하며, 상호 연결된 존재

방식을 실천하는 성역이 됩니다.

장자는 자신이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가

막 깨어난 사람인지, 혹은 인간이 되는

꿈을 꾸는 나비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호접지몽'으로 유명한 도교 철학자입니다.

그의 불확실성은 실재와 우리의 지각을

세상을 고정된 진실이 아닌 움직이는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고하며,

신기루로 재고찰합니다. 영화는 그 자체로

집단적인 꿈과 같습니다. 영화는 깨어있는

변형 작용, 모호함, 시적인 논리가 우선되는

삶보다 더욱 생생한 그림자를 투사하고.

공간을 보여줍니다.

Spiritual communities offer spaces of belonging outside conventional societal structures. Whether through covens, circles, or secret clubs, they ground transcendental experience in context of communal care and intimacy. In an increasingly atomized world, these communities are sanctuaries in which people can come together to create meaning, reimagine kinship, and practice an interconnected way of being.

The Taoist philosopher Zhuangzi was

was a man who had just awoken from

the dream that he was a butterfly, or

man. His uncertainty alerts us to the

difficulty of separating what is real

from what is perceived, reframing the

world as a shifting mirage rather than

a fixed truth. Cinema is itself a collec-

momentarily become more vivid than

waking life, a space in which metamor-

phosis, ambiguity, and poetic logic take

tive dream: projected shadows that

precedence.

a butterfly now dreaming he was a

famously unsure as to whether he

Day 3

각몽(覺夢) Waking Dreams

교섭 Communio

라우라 우에르타스 밐라 Laura Huertas Millán 〈코카를 위하여〉 Para La Coca

콜렉티보 로스

〈코욜샤우키〉

Coyolxauhaui

2017

9 min

잉그라비도스

Colectivo Los Ingrávidos

2023 25 min

이 2채널 영화는 콜롬비아 토착 공동체에서 코카 식물의 현대적 의례 사용을 탐구합니다. 이 식물에 부여된 식민주의적 의미와 범죄화를 넘어서, 이 영화는 (고메즈 아벨과의 협업으로) 공동체에 코카 식물을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소녀 신과, 그 신을 코카 식물이라 여기는 무루이족의 신화를 들려줍니다. 이 영화는 이러한 문화적 관행들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This two-channel film examines contemporary ritual use of the coca plant in Colombia's indigenous community. Moving beyond the colonialist meanings assigned to the plant and its criminalization, the film (made in collaboration with Gómez Abel) tells a foundational myth of the Murui, who see the coca plant as a deity in the form of a girl who teaches the community how to use the plant ethically. The film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and preserving these cultural practices.



타마르 귀마래스와

카스페르 악호이

Tamar Guimarães and

Kasper Akhøi

역사 연구〉

Studies for a Minor

2.017

32 min

〈진동하는 물질의 비주류적

History of Trembling

(코욜샤우키〉는 멕시코 변방의 페미사이드를 신랄하게 폭로하는 작품으로, 아즈텍의 달의 여신 코욜샤우키가 남동생 우이칠로포치틀리로 인해 사지가 찢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화와 의례의 특성을 다루는 시각적 시인 〈코욜샤우키〉는 현재 멕시코에서 확산되고 있는 페미사이드와 문화적 광의의 형성 간의 연관성을 탐구합니다.

Coyolxauhqui is a searing exposé of femicide in rural Mexico that retells the story of the dismemberment of the moon goddess Coyolxauhqui by her brother Huitzilopochtli. A visual poem about the nature of myth and ritual, Coyolxauhqui explor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present epidemic of femicides in Mexico and wider cultural formations



요아킨 쾨스터 loachim Koester 〈해시시 클럽〉 The Hashish Club

2009

쾨스터의 영화는 샤를 보들레르, 테오필 고티에, 외젠 들라크루아 등을 비롯한 19세기 프랑스 지성계의 주요 인물들을 아울렀던 '해시시 클럽'을 바탕으로 합니다. 해시시는 정신과 의사 자크-조제프 모로 박사가 공급했던 약물로, 그는 정신 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의 효과와 확장된 창조성의 상태를 비교한 바 있습니다

Koester's film is based on Le Club des Hachichin, which comprised key figures of the nineteenth-century French intelligentsia including Charles Baudelaire, Théophile Gautier, and Eugène Delacroix. Hashish was supplied to the club by Dr. Jacques-Joseph Moreau, a psychologist who compared the effects of the drug to the symptoms of mental illness, conjecturing that both produce a state of expanded creativity.

심령술 치유 의례가 일상에서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브라질 팔멜로 마을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두 영매

디비누와 라자루가 공동체 의식과 개인적 공간을 오가는

모습을 따라갑니다. 전통 치료법에 쓰이는 식물들과 찢어진

자료를 통해. 이 영화는 '작은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제도적 의학의 대안으로서 체화된 영적 실천을 기록합니다.

Set in the Brazilian town of Palmelo-where Spiritist

healing rituals remain central to daily life—the film

between communal ceremonies and their personal

spaces. Through intimate visuals—plants used in

institutional medicine.

follows two mediums. Divino and Lázaro, as they move

traditional remedies, torn chromolithographs of Saint

ments embodied spiritual practice as an alternative to

Lazarus—it both evokes a "minor history" and docu-

성 라자루스의 컬러 석판화 같은 사적이고 내밀한 시각



아밋 두타 Amit Dutta 〈헤마디 씨의 중단된 꿈들〉 The Many Interrupted Dreams of Mr.

2024 14 min 가우탐 헤마디가 벵갘루루 아트 앤 포토그래피 뮤지엄에 기증한 35,000개의 성냥갑을 바탕으로, 영화는 성냥갑 라벨에 제시된 상징과 이미지들을 혼돈스러우면서도 의미 있는 지식과 지혜의 모자이크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꿈과 현실의 상호작용, 그리고 수집과 창조의 역설적 본성에 대해

이 영화는 성냥갑 예술에 담긴 여러 서사들을 탐구합니다.

The film explores the many narratives contained in the art of matchboxes. Based on the donation by Gautam Hemmady of 35.000 matchboxes to the Museum of Art & Photography in Bengaluru, it presents the symbols and images presented on their labels as a chaotic yet meaningful mosaic of knowledge and wisdom. In doing so, it reflects on both the interplay of dreams and reality, and the paradoxical nature of collecting and creation.

(12) 아노차 수위차콘퐁 Anocha

Suwichakornpong 〈그레이스래드〉 Graceland

2006 17 min

(그레이스랜드〉는 아노차 수위차콘퐁이 필름 스쿨에 재학 중이던 당시 『오즈의 마법사』에서 부분적으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으로, 태국 최초로 칸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단편 영화입니다. 어느 날 밤 방콕에서 엘비스 프레슬리 모창가수 존은 신비로운 여인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인간의 마음이라는 낯선 곳으로 꿈같은 여행을 떠납니다

Partly inspired by The Wizard of Oz, and made while Anocha Suwichakornpong was still in film school, Graceland was the first Thai short film to be officially selected by Cannes Film Festival, One night in Bangkok, an Elvis impersonator called Jon meets a mysterious woman. Together, they embark on a dreamlike journey to the foreign land of the human 《강령: 영혼의 기술》 영화 프로그램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Cinematheque Seoul Art Cinema 2025. 08. 26 - 11. 23

Séance: Technology of the Spirit Film Program

《강령: 영혼의 기술》 서울시립미술관 옥상 상영회 Séance: Technology of the Spirit A Rooftop Screening Program at SeMA

서울시립미술관 옥상

🍪 रंदुनावीकावाविवाही 🍪 न्दृन्धानामा kofic अवस्वत्रवाहित 🕏 👫 🔭 महास्टाहर

SeMA Rooftop 2025. 09. 01 - 09. 04



《강령: 영혼의 기술》영화 프로그램 Séance: Technology of the Spirit Film Program 2025. 08. 26 - 11. 23

장소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Venue Cinematheque Seoul Art Cinema 주관 및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Host & Organizer Seoul Museum of Art SeMA 파트너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SeMA Partners Korean Association of Cinemathegues (KACT)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본 영화 프로그램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A film program in four chapters.

오래전부터 영화는 강령술과 많은 부분을 공유해왔습니다. 영화라는 형태가 생겨나면서 감독들은 산 자와 망자,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영성을 매개하기 위해 이미지와 현실 간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습니다.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영화 프로그램은 영화를 일상 속 신성의 발현으로 공동 의례로 살펴보는 마야 데렌의 개념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되었습니다. **망자와의** 대화 조상들의 숙결 프시케와 스크린 일상 속 신비주의라는 네 개의 주제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마다 총 스물 한편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 티켓 예매는 상영 일정 2주 전부터 서욱아트시네마 웬사이트에서 옄립니다. Every Saturday 1 PM

Cinema has always had much in commor with the séance. Since the invention of the form, filmmakers have also sought to unsettle the boundaries between image and reality, and to mediate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the rational and the

보는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의 비전과 영화를 Inspired equally by Pier Paolo Pasolini's vision of cinema as the sacred emanation of the divine within the everyday and Maya Deren's conception of film as a llective ritual, the 13th Seoul Mediacity Biennale's film program unfolds in four thematic chapters: Speaking with the Dead; Ancestors Breathing; Psyche and the Screen; and Everyday Mysticism.

> * Ticket booking opens on the Seoul Art Cinema website two weeks before each screening.

망자와의 대화 Speaking with the Dead

영성주의적 강령이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문턱을 넘어 소통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 프로그랜의 첫 번째 장에서 소개하는 영화들은 산 자와 망자를 연결하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맥락에서의 상실, 애도, 안식을 성찰합니다.

Just as spiritist séances seek to commu the physical from the spirit world, so the films in this chapter connect the living with the dead. They reflect on loss, mourning, and repose in diverse cultural and religious contexts.

조상들의 숨결 **Ancestors Breathing**

본 프로그램의 두 번째 주제는 조상의 존재를 사유하는 영화들입니다. 여기서 망자가 끊임없이 끼치는 영향은 그저 메타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산 자들의 풍경, 전통, 의례 안에서 생생하게 존재합니다. 본 장에서 소개하는 작품들은 조상과의 연결감이 어떻게 현재를 형성하는지를 탐구하고, 시간에 관한 식민주의적 모형을 뒤흔들며, 과거를 소외시켜 온 근대성에 도전합니다.

reflect on the presence of ancestors. Here, the continued influence of the dead is not only a metaphor; our forebears are active in the landscapes. traditions, and rituals of the living. These works explore how these ancestral connections shape the present. unsettling colonial models of time and challenging modernity's disregard for

This chapter brings together films that

프시케와 스크린 Psyche and the Screen

본 장에서 소개하는 영화들은 아방가르드 영화 제작 기법을 활용하여 관객을 그리움. 부재, 강박의 경험에 몰입하게 합니다. 마음은 타임 루프, 정체성 분열, 환각으로 사라지는 현실을 통해 미로가 됩니다.

The films in this chapter use the techniques of avant-garde filmmaking to immerse the viewer in experiences of longing, absence, and obsession. The mind becomes a labyrinth in which time loops, identities splinter, and reality dissolves into hallucination.

일상 속 신비주의 **Everyday Mysticism**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에게 영화의 신성한 잠재력은 현실의 변형이 아니라. 일상에 숨겨진 신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본 장에서 소개하는 영화들은 운명을 헌신과 의심 사이에서 유예된 것으로 여깁니다. 이 작품들은 가시적인 세계 안에서 마주하는 몸들, 풍경들, 만남들이 그 너머의 압력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추적합니다. 여기서 기적은 거대한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내재하는 원료로서 자리합니다.

For Pier Paolo Pasolini, the sacred potential of cinema lay not in transforming reality but in revealing the mysteries hidden in the everyday. The films in this chapter consider faith as it is suspended between devotion and doubt. They trace bodies, landscapes, and encounters in which the visible world is distorted by the pressure of that which lies beyond Here, miracles do not arrive as grand events but are embedded in the raw material of existence.

망자와의 대화 Speaking with the Dead

08.30 13.00

(1) 라울 루이즈, 〈다가올 영화〉, 1997. 8분
Raúl Ruiz, The Film to Come, 1997. 8 min
2) 마르셀카뮈,〈흑인 오르페〉, 1959. 107분
Marcel Camus, Black Orpheus, 1959. 107 min
상영 시작 전 예술감독팀의 토크가 진행됩니다. The screening will be introduced by the Biennale's Artistic Director.
,

16.10 (3) 이장호.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1987. 117분 Lee Jang-ho, The Man with Three Coffins, 1987. 117 min

09.06 13.00 (4) 마티 디옵, 〈애틀랜틱스〉, 2019.106분 Mati Diop, Atlantics, 2019, 106 min

09.13 13.00 (5) 트린 T. 민하. 〈밤의 여로〉, 2004.98분 Trinh T. Minh-ha, Night Passage, 2004. 98 min

조상들의 숙결 Ancestors Breathing

			122 min
ı	09.27	13.00	(7) 카밀로 레스트레포, 〈실라오스〉, 2016. 13분
,			Camilo Restrepo, Cilaos, 2016. 13 min
			(8) 슐레이만 시세.〈광채〉, 1987, 105분

09.20 13.00 (6)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찬란함의 무덤〉, 2015.122분

10.04 13.00 (9) 가와세 나오미, 〈너를 보내는 숲〉, 2007. 97분 Naomi Kawase, The Mourning Forest, 2007. 97 min

15.30 (10) 카롤린 데오다, 〈페티시의 하늘 아래〉, 2023. 17분 Caroline Déodat, Under the Sky of Fetishes, 2023. 17 min (11) 타카미네고, 〈변어로〉, 2017. 81분 Go Takamine, Hengyoro (Queer Fish Lane), 2017. 81 min

Souleymane Cissé, Yeelen, 1987. 105 min

프시케와 스크린 Psyche and the Screen

		Ken McMullen, Ghost Dance, 1983. 100 min
10.18	13.00	(13) 마야 데렌, 〈오후의 그물망〉, 1943. 14분 Maya Deren, Meshes of the Afternoon, 1943. 14 min (14) 루이스 부뉴엘, 〈욕망의 모호한 대상〉, 1977. 104분 Luis Buñuel, That Obscure Object of Desire, 1977.

10.11 13.00 (12) 켄 맥멀런, 〈고스트 댄스〉, 1983.100분

10.25 13.00 (15) 니나 멘케스, 〈팬텀 러브〉, 2006.87분 Nina Menkes, Phantom Love, 2006, 87 min

11.01 13.00 (16) 페드로 코스타, 〈호스 머니〉, 2019.124분 Pedro Costa, Horse Money, 2019, 124 min

11.08 13.00 (17) 로베르토로셀리니, 〈기적〉, 1948.40분

일상 속 신비주의 **Everyday Mysticism**

		Roberto Rossellini, <i>The Miracle</i> , 1948. 40 min (18) 장뤽 고다르, 〈마리아에게 경배를〉, 1985. 72분 Jean-Luc Godard, <i>Hail Mary</i> , 1985. 72 min
11.15	13.00	(19)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 〈달에서 본 지구〉, 1967. 11분 Pier Paolo Pasolini, The Earth as Seen from the Moon, 1967. 11 min (20)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체리향기〉, 1997. 92분 Abbas Kiarostami, Taste of Cherry, 1997. 92 min

Alice Rohrwacher, La Chimera, 2023, 130 min

13.00 (21) 알리체 로르와커. 〈키메라〉. 2023. 130분



라욱 루이즈 Raúl Ruiz 〈다가올 영화〉 The Film to Come

1997 France/Switzerland 8 min

이 단편 우화에 등장하는 비밀 결사회 필로키네테스는 신비롭고, 신성하며, 작품과 동명의 셀룰로이드 스트립을 보는 것에 전념합니다. 트랜스와 유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들은 일상의 삶이 단지 꿈에 불과하며, 영화야말로 새로운 세계가 탄생할 수 있는 원초적 실체라고 믿게 됩니다.

In this short fable, a secret society known as the Philokinetes devotes itself to the continuous viewing of a mysterious, sacred strip of celluloid—the eponymous film to come. Existing in a trance-like state, they come to believe that ordinary life is merely a dream, and that cinema is the primordial substance from which a new world might arise.

이 영화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신화를 20세기 중빈

리우데자네이루의 거리에서 열린 카니발 축제로 옮겨와

재해석합니다. 거리의 전차 운전사인 오르페우스와



마르셐 카뮈

〈흑인 오르페〉

1959

Brazi

107 min

Marcel Camus

Black Orpheus

위험을 피해 도망친 여인 에우리디케는 짧지만 운명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음악, 춤, 신화가 뒤섞이는 세계 속에 15 펼쳐지는 그들의 이야기는 삶과 죽음 사이의 흐릿한 경계를 드러낸니다

A retelling of the Orpheus and Eurydice myth, transposed onto the streets of mid-century Rio de Janeiro during Carnival. Orpheus, a streetcar conductor, and Eurydice, a woman fleeing danger, fall into a love that is both brief and fated. Their story unfolds in a world where music, dance, and myth blend, evoking the porous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이장호 Lee Jang-ho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The Man with

South Korea 117 min

Three Coffins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된 순석은 아내의 유골을 고향에 뿌리고자 길을 나섭니다. 여행길에서 아내와 묘하게 닮은 여성 세 명을 만나게 되고, 그의 시간과 자아에 관한 감각이 뒤흔들리게 됩니다. 이제하가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과거와 현재가 합쳐진 꿈 같은 현실을 통과하는 한 남자의 여정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픽션과 무속 다큐멘터리 푸티지를 섞어 만든 이 영화는 트랜스와 유사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Three years after his wife's death, Sun-seok sets out to scatter her ashes in her hometown. Along the way, he encounters three women who eerily resemble her, unsettling his sense of time and self. Adapted from Leo Je-ha's novel, The Man with Three Coffins centers on a man's journey through a dreamlike reality where past and present merge. By blending fiction with documen tary footage of shamanic rituals, the film creates a trance-like experience

다카르의 한 교외에 새로운 고층 빌딩이 대서양 연안 위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착취를 등에 업고 세워진 이

건물은 부를 상징합니다.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 중에는 다른

남자와 약혼한 아다를 사랑하는 젊은 슐레이만도 있습니다.

수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한 슐레이만과 동료들은 절박함에



마티 디옵 Mati Dion (애틀랜틱스) Atlantics

106 min

In a suburb of Dakar, a new skyscraper towers above the Atlantic coast, a symbol of wealth built on the Senegal/France backs of exploited laborers. Among them is Souleiman, a young construction worker in love with Ada, who has been promised to another man. Unpaid for months, Souleiman and his fellow workers make the desperate decision to leave by sea in search of a better future. In the days following their disappearance, a strange fever begins to spread through the city. As Ada struggles with her grief, ghosts of the lost men return, inhabit-

denied to them in life.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바다로 떠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들이 사라지고 며칠 후, 도시 전체에 기이한 열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다가 상심에 빠져 있는 동안, 실종된 남자들의 유령이 돌아와 산 자들의 몸에 숙주하며 생전에 거부당했던 〈광채〉 Yeelen 1987

ing the bodies of the living and demanding what was



2004

98 min

USA/Vietnam

대변하는 듯한 꿈의 세계가 기차 창문을 통해 현실의 삶으로 스며드는 듯한 놀라운 풍경과 마주하게 되고, 이에 어울리는 E리T 미하 웃장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Trinh T. Minh-ha 〈밤의 여로〉 Inspired by Miyazawa Kenji's classic children's novel Milky Way Railroad, this film follows a young woman, Night Passage

her best friend, and a young boy as they travel on a magical train into the afterlife. Through the window of the train we observe a series of marvellous landscapes. accompanied by a comparably extraordinary score, that seem to bring the world of dreams—and perhaps of death—into waking life.

미야자와 겐지의 고전 아동 소설 『은하철도의 밤』에서

영감을 받은 이 영화는 젊은 여성과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한 소년이 사후 세계로 향하는 마법 열차에

탑승하면서 벌어지는 여정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죽음을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Weerasethakul

Cemetery of Splendor

Apichatpong

〈찬란함의 무덤〉

2015

Thailand

122 min

불명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현지 자원봉사자인 젠지라는 희생자 중 한 명인 이트와 친구가 되고, 그의 잠에 묻힌 기억을 밝혀내기 위해 영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영화는 정교한 사회 비평을 통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시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에 대한 감독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옛 학교 건물에 자리 잡은 임시 진료소에서 정체불명의

면병에 걸린 병사들이 환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의식

In a temporary clinic set up in a former school, a group of soldiers afflicted with a mysterious sleeping sickness lie in a state of suspended consciousness in which it becomes impossible to separate hallucination from reality, leniira, a local volunteer, befriends one of the victims. Itt. and enlists a medium to help uncover the memories buried in his slumber. A subtle social commentary, the film showcases Weerasethakul's interest in the means by which historical trauma resurfaces in the present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한 젊은 여성이 아버지가

아버지를 찾아 길을 나섭니다. 레위니옹 섬의 제의적

이미 죽었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주문인 말로야의 매혹적인 리듬에 홀린 듯한 이 작품은 산

자와 조상을 이어주는 얽히고설킨 연결과 청산의 의미를

탐색합니다.

means to settle a score.



(7) 카밀로 레스트레포 Camilo Restrepo 〈싴라오스〉 Cilaos

2016 Colombia To keep a promise made to her mother, a young woman goes in search of the father she has never met, despite rumors that he has died. Carried by the spellbinding rhythm of the maloya, a ritual chant from Réunion Island, Cilaos explores the complex binds that connect the living with their forebears, and what it



슐레이만 시세 Souleymane Cissé

105 min

밤바라족의 우주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광채〉는 신비로운 힌옥 지니 청년 니아나군로가 포련적인 아버지와 맞서기 위해 떠나는 여정을 따라갑니다. 이 영화는 입문과 지식의 전승에 대한 신화적인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밝음 혹은 빛을 의미하는 작품의 제목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신성한 에너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Rooted in Bambara cosmology, Yeelen follows Nianankoro, a young man with mystical powers, as he journeys to confront his tyrannical father. The film unfolds as a mythic tale of initiation and the transmission of knowledge. Its title-meaning "brightness" or "light"—evokes both illumination and the sacred energies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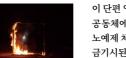
가와세 나오미 Naomi Kawase 〈너를 보내는 숲〉 The Mourning Forest

97 min

2007

양로원에서 수년간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내온 노인 시게키는, 자신만의 깊은 슬픔을 극복 중인 간병인 마치코와 유대감을 쌓아갑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울창한 숲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애도 기간을 뜻하는 일본 고대의 상장례 문화인 '모가리' 개념에 기반을 둔 이 영화는 죽음과 기억에 관한 토착적 관습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After years spent in a retirement home, Shigeki, an elderly man mourning the death of his wife, forms a quiet bond with his caregiver, Machiko, who is coping with her own buried grief. Together, they embark on a journey into a dense forest. Rooted in the Japanese concept of mogari, a period of mourning and transition, the film expresses native customs and beliefs around death and remembrance.



카롴린 데오다 Caroline Déodat 〈페티시의 하늘 아래〉 Under the Sky of Fetishes

France/Mauritius

17 min

Go Takam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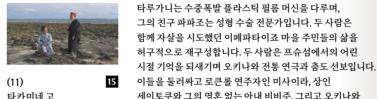
Hengyoro (Queer Fish

〈변어로〉

81 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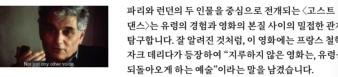
이 단편 영화는 모리셔스에 이주해 온 도망 노예들의 공동체에서 탄생한 전통 무곡인 세가의 역사를 다룹니다 노예제 체제 동안에는 억압되었다가, 제도의 폐지 이후 금기시된 세가는 관광이 대중화되면서 비로소 '공식적인 유산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식민주의적 시선과 비서구 문화를 향한 강요된 해석을 거부하는 영화는 단순하게 춤추는 몸을 따라가며 전개됩니다.

This short film tells the history of séga, a musical and dance tradition particular to enslaved and fugitive communities in Mauritius. Repressed under slavery and taboo after abolition, the form only gained "official" heritage status with the advent of mass tourism. Seeking to resist the colonial gaze and the interpretations it forces on nonwestern cultures, the film simply follows the dancing body.



민요를 부르는 회반죽 장인 카메 등이 등장합니다. Tarugani operates a plastic underwater explosion film machine, while his friend Papajo specializes in plastic surgery. Together, they fictionally reinvent the lives of villagers at Ifepataijyo who have attempted suicide. The two also perform traditional Okinawan plays and dances, reflecting on memories of their childhood in

Island Pshoo. Surrounding them is an eclectic group: Missiler, a rock 'n' roller; Seitoku, a tradesman with his soulless wives, the Bibiju; and Kame, a plaster artisan who sings Okinawan folk so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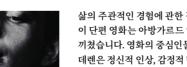
켄 맥멀런 Ken McMuller 〈고스트 댄스〉 **Ghost Dance**

1983 UK 100 min

마야 데레 Maya Deren 〈오후의 그물망〉

USA 14 min 댄스〉는 유령의 경험과 영화의 본질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탐구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영화에는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등장하여 "지루하지 않은 영화는, 유령을 되돌아오게 하는 예술"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Centering on two characters in Paris and London, Ghost Dance explore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ghosts and the nature of cinema. The French philosopher Jacques Derrida famously appears in the film, stating that "cinema, when it's not boring, is the art of letting ghosts come 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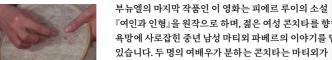


Meshes of the Afternoon

삶의 주관적인 경험에 관한 질감을 표현하는데 선구적이었던 이 단편 영화는 아방가르드 영화 제작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화의 중심인물로 직접 등장한 작가 마야 데렌은 정신적 인상, 감정적 반응, 신체적 충동이 관찰 가능한 세계와 결합하는 꿈과 같은 시퀀스를 사용하여 '현실'이 우리

A pioneering attempt to express the texture of lived, subjective experience, this celebrated short film would prove enormously influential on avant-garde filmmaking. Deren, who also plays the central role, uses dreamlike sequences in which mental impressions, emotional responses, and physical impulses merge with the observable world to reveal how "reality" can never be separated from our individual perception of it.

개인의 인식과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14) 루이스 부뉴엨 Luis Buñuel

〈욕망의 모호한 대상〉 That Obscure Object of

1977 104 min

(15)

니나 멘케스

〈팬텀 러브〉

2006

USA

(16)

페드로 코스타

Pedro Costa

〈호스 머니〉

2019

Portugal

124 min

로베르토 로셀리니

〈기적〉

1948

Italy

40 min

The Miracle

Roberto Rossellini

Horse Money

87 min

Nina Menkes

Phantom Love

『여인과 인형』음 원작으로 하며, 젊은 여성 콘치타를 향한 욕망에 사로잡힌 중년 남성 마티외 파베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명의 여배우가 분하는 콘치타는 마티외가 불안정하게 집착하는 대상으로. 마티외의 움직이는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영화는 갑작스러운 전환과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으로 점철된 비선형적인 서사 속에서 유혹과 거부. 열정과 권력 사이에서 전개됩니다.

Based on Pierre Louys's novel The Woman and the Puppet, Buñuel's final film tells the story of Mathieu Faber, a middle-aged man consumed by his desire for a young woman named Conchita. Played by two different actresses, Conchita becomes an unstable object of obsession, reflecting Mathieu's shifting identities. The film moves between seduction and rejection, passion and power, in a nonlinear narrative marked by abrupt transitions and unresolved tensions.

그녀의 혀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내면의 상태름

필요성을 그려냅니다.

and the need for escape.

경험을 그려냅니다.

구성이 깊이 얽힌 세계를 구축하며, 감정적 소외와 탈출의

Lulu, a solitary woman working in a casino in Los

Angeles' Koreatown, navigates a space shaped by

abuse, trauma, and detachment. As her reality begins

that evoke inner states. Menkes crafts a world where

entwined, offering a portrait of emotional alienation

영화는 벤츄라라는 노인이 과거의 유령들로 가득 차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밤을 횡단하는 여정을 따라갑니다. 영화의

시점은 병원 생활과 관료주의로 점철된 그의 현재와, 혁명이

일어난 포르투갈에서 친구와 칼을 들고 싸움에 나섰던

도시를 맴도는 불안한 영혼들을 통해 홀린 듯한 영화적

The film follows an old man called Ventura as he

traverses a seemingly endless night populated by the

ghosts of his past. The time is both now—marked by

hospital stays and bureaucracy—and also the time of

Ventura's youth, when Portugal was in revolution and

he got into a knife fight with his friend... From the rest-

less spirits that haunt a decaying city, Costa conjures a

찬양하던 한 시골 여인이, 곧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광인으로 조롱을

받으면서도, 성령의 축복을 받았다고 믿으며 아이를 낳기로

결심합니다. 로셀리니는 자신의 경험을 절제되고 모호하게

A peasant believes she has encountered Saint Joseph

compliments, only to later find herself pregnant with

his child. Ostracized by her community and ridiculed

lieving she has been blessed by a holy spirit. Rossellini

portrays her experience with restraint and ambiguity,

offering a powerful reflection on belief, isolation, and

as a madwoman, she opts to bear the child anyway, be-

and in a state of religious ecstasy showers him with

그려내며 믿음, 고립, 은총에 관한 강력한 성찰을 제시합니다.

성 요셉을 만났다고 믿고 종교적 황홀경에 빠져 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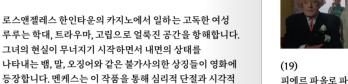
spellbinding cinematic experience.

벤츄라의 유년기를 모두 보여줍니다. 감독은 쇠락해 가는

psychic rupture and visual composition are deeply

to fray, the film presents a succession of enigmatic

symbols—including snakes, horses, and squids—



(18)

1985

France

72 min

1967

성모 마리아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이 영화는 종교적 서사와 현대적 삶을 병치합니다. 고요하고 서정적인 이 작품은 마리아를 평범한 청소년으로 묘사합니다. 천사의 경고를 받은 뒤 혼란에 빠진 순결한 마리아는 예기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되고, 택시 운전사인 남자 친구 요셉과 강제로 19 결혼합니다. 요셉은 한편 자신의 동정녀 신부를 멀리서

장뤼 고다리 만지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Jean-Luc Godard 〈마리아에게 경배를〉 A contemporary retelling of the story of the Virgin Hail Mary

Mary, the film juxtaposes religious narrative with modern life. This serene and lyrical work presents Mary as an ordinary teenager. Following a warning from an angel, a confused and innocent Mary unexpectedly falls pregnant and is forced to wed her taxi-driving boyfriend Joseph. He, in turn, must love his virgin bride from a distance, revering her without touching her.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 Pier Paolo Pasolini 〈달에서 본 지구〉 The Earth as Seen from the Moon

11 min

녹색 머리를 한 신비로운 여성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A surreal and comic fable exploring love, loss, and the absurdity of life, in which the boundaries between the profane and the miraculous blur. After the death of his wife by mushroom poisoning, a man and his son set out to find her replacement. They are helped in the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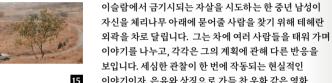
incompetent search by a mysterious green-haired

이 초현실적이고 코믹한 우화는 세속과 기적 사이의 흐릿한

경계들을 따라 사랑, 상실, 삶의 부조리를 탐구합니다. 버섯

중독으로 아내가 사망한 후, 남자와 그의 아들은 아내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어설픈 수색을 하던 그들은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Abbas Kiarostami 〈체리향기〉 Taste of Cherry

Iran 92 min

보입니다. 세심한 관찰이 한 번에 작동되는 현실적인 이야기이자,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 찬 우화 같은 영화 〈체리향기〉는 관객으로 하여금 억압된 것과 마주하게 합니다. A middle-aged man drives through the outskirts of Tehran searching for someone willing to bury him under a cherry tree after he dies—by suicide, a taboo

under Islam. As he speaks with a series of passengers, each offers a different response to his plan. Operating at once as a closely observed, realistic story and a fable populated by metaphors and symbols, Taste of Cherry challenges the viewer to confront what is so often



알리체 로르와커 Alice Rohrwacher 〈키메라〉 La Chimera

2023

Italy

130 min

거래하는 이탈리아인 도굴꾼 톰바롴리 무리에 합류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상실에 사로잡힌 아서는 사후 세계로 가는 문을 찾아 나섭니다. 신화, 역사, 오늘날의 절망을 직조한 이 작품은 가시적인 세상의 이면에서 지속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갈망과 물질적인 욕망 사이의 긴장감을 탐구합니다.

Arthur, a young Englishman with a gift, joins a group of

재능 있는 젊은 영국인 아서는 고대 에트루리아 유물을

 $Italian \ tombar oli-grave \ robbers \ who \ traffic \ in \ ancient$ Etruscan artifacts. Haunted by the loss of a woman he loved, Arthur searches for a doorway to the afterlife. Weaving myth, history, and present-day desperation, La Chimera explores the tension between spiritual yearning and material desire, where the invisible persists beneath the surface of the visible world.